



## 한덕수 국무총리, 말라위 방문(10.30)

- 「차퀘라」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, 양국 경제·개발 협력 확대 방안 논의
- 양국 외교부간 공동위원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3박 7일(10.29~11.4) 간 아프리카 3개국(말라위·토고·카메룬) 및 유럽 2개국(노르웨이·핀란드) 순방의 첫 국가로, 10.30(월) 말라위를 방문하였다.
  -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1965년 한-말라위 수교 이래 우리 정상급 인사로서 최초 방문이다.
- 한 총리는 「라자루스 맥카시 차퀘라(Lazarus McCarthy Chakwera)」 말라위 대통령과 면담하고, 농업·교육·보건 등 분야별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  - ※ 한 총리, 지난 5월 영국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참석 계기 차퀘라 대통령 면담
  - 한 총리는 양국 교역 및 투자 확대, 농업·교육·보건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, 말라위의 ‘비전 2063\*’ 이행의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였다.
    - \* 2063년까지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말라위의 국가개발목표로서 △농업생산성 증대 △도시화 △산업화 등 목표 추진중(21.1월 발표)
  - 한 총리는 작년 7월 발효된 한-말라위 경제기술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, 오늘 양국 외교부간 ‘공동위원회’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체결\*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, 올해 중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.

\* 면담 직후, 한 총리-차퀘라 대통령 임석 하에 양국 외교부 간 '공동위원회 설립에 관한 MOU' 체결(서명자 : (한)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 - (말) 낸시 템보(Nancy Tembo) 외교장관)

○ 또한, 한 총리는 지난 3월 열대폭풍 프레디(Freddy)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말라위에게 위로의 뜻을 표하고, 말라위의 재건사업에 3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.

※ 우리 정부는 UNFPA의 말라위 열대폭풍 피해 복구 지원 사업에 20만불 지원(23.4월)

○ 아울러, 한 총리는 말라위와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을 희망하고, 「2030 부산세계박람회」와 내년 개최 예정인 「한-아프리카 정상회의」에 대한 차퀘라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였다.

□ 차퀘라 대통령은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을 환영하고, 말라위의 경제개발전략인 '비전 2063' 이행을 위해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.

○ 차퀘라 대통령은 한국이 그간 말라위의 식량안보 증진과 교육, 보건 접근성 제고에 기여해 온 것을 평가하고,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 경험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.

○ 또한, 차퀘라 대통령은 말라위의 열대폭풍 프레디 피해 재건 노력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.

□ 양국 수교 이래 최초로 성사된 이번 한 총리의 말라위 방문은 한국과 말라위가 장기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,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
○ 한 총리는 10.30(월) 저녁 두 번째 순방지인 토고로 이동하였으며, 내일 한-토고 총리회담 및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박영철 (044-200-2136)
		담당자	사무관	박철순 (044-200-2135)

